

기아차·삼성전자 등 광주·전남 50여 곳 포함 458개 업체

온실가스 내년 870만 t 감축

광양제철소 포함 포스코 96만3000t 최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삼성전자 광주사업장·포스코 광양제철소·금호타이어 등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하는 광주·전남지역 업체 50여 곳을 비롯해 458개 업체에 내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확정됐다. 이들 업체는 내년 예상 배출량의 1.44%에 해당하는 87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산업·발전·농축식품 부문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에 따르면 포스코·삼성전자 등 온실가스 관리 대상인 458개 업체는 내년 온실가스 예상배출량(6억 630만t)의 1.44%인 870만t을 감축한 5억9760만t을 배출해야 한다. 광주·전남지역 연관 업체는 5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에 주소를 둔 업체는 금호타이어·남해화학·세방전지·일신방직·현대삼호중공업 등 25개 업체이고, 주요 사업장이 있는 업체는 기아자동차·삼성전자·포스코·GS칼텍스·LG이노텍·여천NCC·한국수력원자력 등 25개 기업이다. 또 금호산업 고속사업부는 교통분야에서, 보해양조를 인수한 창해에탄올은 농·축·식품분야에서 지정됐다.

특히 포스코·삼성전자·LG화학 등 대기업 10개사가 내년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는 250만t으로, 전체 산업부문 감축량(4700만t)의 5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곳은 광양제철소가 포함된 포스코로 예상배출량 대비 96만 3000t을 감축해야 한다. 이는 전체 산

업부문 감축 목표치의 20.6%에 달하는 수치다. 이어 삼성전자의 감축량이 42만9000t(9.2%)으로 2위를 차지했고, LG디스플레이(32만7000t), 현대제철(19만2000t),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12만9000t)가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철강 업종(38개사)의 감축량이 132만t(감축률 1.1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34개사) 업종이 109만t, 석유화학(76개사) 77만t(1.29%), 시멘트(24개사) 50만5000t(1.00%), 정유(4개사) 44만9000t(1.29%) 등 상위 5개 업종의 감축규모가 총 410만CO2eqt으로 산업부문 감축량의 88%를 차지했다.

지경부는 내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은 4700만t으로 전기자동차 350만대를 도입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내며, 에너지 절감량은 5만8000

TJ(테라줄)로 산업 부문 연평균 에너지 소비 증가량의 30%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발전 부문은 감축량이 360만t로 1000MW급 원자력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 것과 버금가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지경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3차례의 업체별 협상과 온실가스·에너지관리위원회 등을 거쳐 업체별 배출 허용량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감축 목표를 부여받은 업체는 오는 12월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내년 1년 간 실제 이행한 결과를 2013년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부과할 예정이며, 이를 불이행한 업체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매장은 벌써 겨울 10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2층 진도모피 매장에서 겨울 모피 신상품을 일찍 선보인 가운데 한 고객이 신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전남 농·축·수산 브랜드 10개 중 4개 사라졌다

최근 5년 새 구조조정

전남지역 농·축·수산 브랜드 10개 중 4개가 최근 5년 사이 구조조정으로 사라졌다.

10일 aT(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이종경)에 따르면 aT가 최근 전국 농축수산 브랜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남지역 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가 개발한 농·축·수산 브랜드는 587개로, 지난 2006년(1041개) 대비 41.1%(454개) 감소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

로, 이 기간 동안 충북은 36.7%, 경북·경남은 각각 30.9%, 경기도는 27.1% 줄었다.

시·도별 농축수산물 브랜드 수는 경남이 949개로 가장 많았고, 경북 799개, 충남 792개, 강원 662개, 전남 587개 순이었다. 이 중 규모화가 이뤄진 공동브랜드는 경북 127개, 전남 122개, 충남 91개, 강원 95개 순이었으며, 개별 브랜드는 경남 874개, 충남 701개, 경북 672개, 강원 577개 등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농·축·수산물 브랜드 수는 5291개로, 지난 2006년(6552개)

보다 19.2% 줄었다.

상표권을 인정받는 특허청에 등록된 브랜드는 37.6%인 1992개였고, 이 중 경북이 422개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247개, 강원 242개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종경 광주전남지사는 “지난 5년 동안 전국 산지조직의 규모화와 권역화로 경쟁력이 없는 브랜드의 구조조정이 진행됐다”면서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관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우수 농축수산 브랜드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농협 ‘1교1촌 농촌체험 학습’ 인기



도시 어린이들에게 농촌의 아름다움과 농업의 소중함을 안겨주는 ‘1교1촌 농촌체험 학습’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10일 순천 비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 120여명이 순천시 낙안면 이곡마을에서 배 수확, 시골밥상 등 다채로운 농촌체험을 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농촌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를 적극 활용해 도시 어린이들에게는 농업·농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농촌에는 도농 교류활동을 통한 농외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농협 전남본부가 마련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만원 이하 카드 못 긁는다?

정부, 신용카드 소액결제 거절 허용 추진 찬반논란 팽팽

신용카드 소액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이번에는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용카드로 결제할지, 현금으로 결제할지를 두고 돈을 받는 사람(가맹점주)의 결정권이 먼저라는 주장과 돈을 내는 사람(소비자)의 선택권이 먼저라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정부가 ‘1만원 이하’를 절충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안은 카드결제와 현금결제의 가격에 차별을 두는 ‘이중가격제’ 허용, 카드 포인트·마일리지 혜택 축소 등과 맞물려 있어 여전법 개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도 예상된다.

◇카드결제 의무화, 藥인가 毒인

가= 과거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해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고객이 카드결제를 요구하면 가맹점주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여가엔 자연업자의 세금탈루를 방지해 세원(稅源)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개인의 카드결제 이용건수(현금서비스·할부구매 제외)는 4억8000만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1월의 1억3000만건에 비해 약 3.7배로 늘었다.

문제는 카드결제가 점주 입장에선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카드사에 수수료로 내야 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결제망을 운영하는 밴(VAN)

사로 들어간다.

점주들은 불과 몇천원짜리 물건을 팔고 카드로 결제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게 없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경기 양극화가 심해지면 중소 가맹점주 입장에선 매출은 줄어든다고 카드결제 수수료까지 내야 하는 고충도 있다.

◇소액 카드결제 거부, 이번엔 성사될까=현재 국회에는 카드결제의 무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 현금영수증 발급을 전제로 카드결제 의무화를 폐지하는 법안, 1만원 미만에 대한 카드결제 의무화를 폐지하는 법안 등이 발의돼 있다.

금융위는 올해 연말까지 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때 이들 법안의 취지를 고려해 1만원 이하의 카드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결제 의무화를 규정한 여전법 19조1항은 카드결제와 현금결제에 대한 이중가격제를 금지한 여전법 19조3항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가맹점주들은 19조3항의 개정도 요구하고 있지만, 자칫 혼란이 커지고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카드·현금 이중가격제에 손을 대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아울러 카드결제 축소에 따라 카드 포인트와 마일리지 혜택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간단히 풀릴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나주 혁신도시 상업용지 등 29필지 분양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는 광주·전남공동혁신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등 29필지, 총 3만5천02㎡를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분양대상은 근린생활용지 8필지와 상업용지 21필지로 혁신도시 정중앙에 있으며 한전 및 한전KDN, 우정정보사업센터 등이 인접해 있어 수요자

들의 관심이 급증, 최고의 투자처로 부상할 것으로 도시공사는 내다봤다.

또한 LH공사와 부영건설이 올해 말 아파트 5208가구를 건설, 내년 분양할 것으로 알려져 분양 열기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분양 관련 문의는 광주도시공사 분양팀(062-600-6661~4)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gmcc.co.kr)를 참조하면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서 외국인투자기업 채용설명회

내일 전남대 도서관

한국알프스 등 외국인투자기업 채용설명회가 12일 광주에서 열린다. 코트라는 10일 호남지역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2011 하반기 외국인투자기업 채용 설명회’를 12일 오후 2시부터 전남대 도서관 별관에서 연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코트라가 주관하는 이번 채용설명회에서는 호남에 있는 외투기업인 한국알프스(일본), 한국에머슨프로세스매니지먼트(미국), 아르네코리아(이탈리아)와 전국 각지의 인재 채용에 관심

이 많은 이베이(미국, 서울 소재) 등 4개 사가 110여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국내 인지도는 높지 않은 편이지만 세계적 기술로 시장을 선도하는 알짜 기업들이다. 코트라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투기업들의 장점을 충분히 알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 4개사 모두 전기, 전자, 기계, 컴퓨터, 전산 등 이공계열 전공자 위주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어서 이공계 취업난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볼키즈 선발

호주오픈 테니스 참가 20명

기아차는 지난 8일 부터 9일까지 2012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에서 활약할 볼키즈 선발대회 결선을 치렀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예선 참가자 9000명 중에서 200명을 뽑아 결선을 치른 결과 최종 20명의 유소년을 볼키즈 한국 대표로 선발했다. 기아차는 또 9일까지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 등지에서 ‘2012 세계 아마추어 호주오픈’에 출전할 한국대표를 뽑았다.

기아차는 지난 2002년부터 세계 4대 그랜드슬램 테니스대회 중 하나인 호주오픈(Australia Open)의 메이저 스폰서로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766.44 (+6.67)
▲	코스닥지수	453.91 (+11.27)
▲	금리 (국고채 3년)	3.48% (+0.05)
▼	원·달러 환율	1171.40원 (-7.1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예약접수 중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개강: 11월1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영·수]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격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서기보 7급 검찰직 영문소영직(전문)

한빛고시학원

필수반 9급 야간반 농업직/기술직 사회복직직 평생강력반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